



LOCALLY

부산 생활 문화 매거진
브 · 로 · 컬 · 리

2020 SUMMER
Vol. 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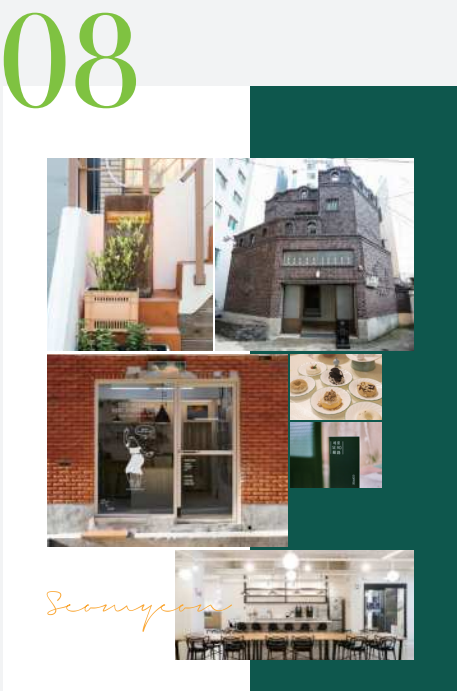
SEOMYEON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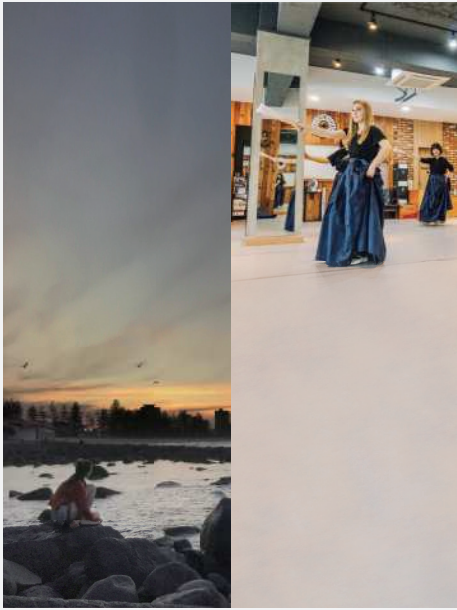


브로컬리 투어
B로컬러가 추천하는 전포동 골목길 여행



부산한 우리
그래서 서면

12



BUSAN NER
브리즈번, 여전히 사람 사는 곳
한국 전통무용에 빠지다



B스켓
지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로컬 아티스트
- 안유미 움웬디자인 대표

14



까만봉다리
숨 돌리러 시장 간다
- 부전동 부전시장

18



특별한 저녁
책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 베이트리 북클럽
- 장재근 베이트리 북클럽 대표



취확행
작은 거위의 휘파람, 가볍게 오카리나

20



생활문화 인포그래픽스
코로나19 시대, 부산 생활문화 연합회 활동 현황

21



보라카이
한여름 밤의 끝을 더욱 특별하게, 호천마을
- 호천문화플랫폼&호천생활문화센터

발행일 2020.07.28. 발행인 강동수 감수 이미연 PM 하경희 기획 하영문 편집실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TEL. 051-257-8038 통권 5호 ISSN 2671-910X 발행처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길 13(동광동) 한성 1918-부산생활문화센터 /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로 84-1(감만동) 부산문화재단 후원 부산광역시 디자인·제작 CCA TEL. 051-647-5991 발간인 정형권 인터뷰·에디터 김정원 편집디자인 하정혜 별지일리스트 이희훈

부산생활문화매거진 B·LOCALLY 브로컬리는 부산문화재단 한성1918에서 만듭니다.

COVER STORY

호천문화플랫폼에서 내려다본 범천2동 호천마을의 야경입니다. 2020년 7월의 한적한 여름밤, 저 멀리 부산항대교가 빛나고 있는 풍경이 아름다운 부산진구 산복도로, 호천마을을 소개합니다.

브로컬리 길라잡이

영양 가득한 채소, 브로콜리처럼 신선한 로컬의 모습을 한가득 담은 브로컬리가 여름 호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새로운 문화가 넘실대는 부산진구를 찾았습니다. 그중에서도 부산의 최대 상권이자 변화가인 서면, 전포동과 부전 일대를 조명합니다.
브로컬리 투어에서는 서면의 중심으로 부상한 전포동의 특색 있는 골목길들을 과거와 현재를 오가며 걸어봅니다. 가장 부산스러운 곳을 찾아가는 부산한 우리에서는 커피와 예술, 그리고 사람이 모여 색다른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복합문화공간 네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부산'으로 하나되는 부산사람, 부산네! BUSAN NER에서는 호주로 떠난 부산녀와 영국에서 온 부산녀의 근황을 담았습니다. 바삭한 예술의 맛, 로컬예술가 인터뷰 B스켓에서는 부산토박이로 지역 콘텐츠를 지도에 담아내는 움웬디자인 안유미 대표를, 일상이 끝난 뒤 취미로 시작되는 특별한 저녁에서는 사람들과 책으로 소통하고 있는 베이트리 북클럽의 장재근 대표를 만납니다. 취미로 얻는 확실한 행복, 취확행으로 도전해볼 오늘의 취미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워볼 수 있는 악기, 오카리나를 소개합니다. 이어 코로나19가 닥친 부산 생활문화 동아리들의 근황을 생활문화 인포그래픽스로 만나보세요. 마지막으로 생활문화와 커뮤니티의 융합으로 지역민과의 상생을 도모하는 호천문화플랫폼과 호천생활문화센터까지, 보라카이에서 알차게 둘러보세요.



넘실대는 소(小)문화의 물결, 그 중심의 서면

그동안 서면을 상징해왔던 큰 빌딩들 아래로 새로운 문화가 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가치와 방식으로 또 다른 세상을 일궈나가는 서면의 다른 얼굴을 소개합니다. 지도와 함께 서면을 더 깊숙이 걸어보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브로컬리

부산생활문화매거진 브로컬리는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다음 호에 발간될 브로컬리의 주인공을 기다립니다. 제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QR코드를 스캔하거나 한성1918-부산생활문화센터 홈페이지(1918.bscf.or.kr)로 접속 후 게시판의 기고 안내문을 참고해주세요.



한성1918 인스타그램
브로컬리에서 다음호 소재와 독자의 의견을 받습니다. SNS 메시지를 통해 제보해주세요!



배포처 신청
브로컬리 신규 배포처를 모집합니다. 제한 없이 독자들에게 자유롭게 배포될 수 있다면 상업공간도 OK! 자세한 내용은 QR코드를 참고해주세요.



B·로·컬·러·가·추·천·하·는

전포동
골목길 여행

정말 고소한 카페라떼를 마시고 싶은 날에는
서면 전리단길에 있는 작은 카페가 떠오른다.
큰 길 뒤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는 서면의 좁은 골목길 속
비밀스러운 매력을 찾아서 골목 탐험을 떠나 보려 한다.

글 고정미((주)어반스토리 대표)
사진 윤민호

1909년 완공된 초읍동 성지곡수원지에서 시작된 물길은 부산시민공원을 지나 서면지역을 향해 흘러 들어와 동천이 되고 바다로 흘러 나간다. 서면지역의 도로와 길 아래에는 크고 작은 물줄기들이 동천을 향해 흐르고 있는데, 지금은 복개천이라고 해서 시멘트와 콘크리트로 덮여져 도로만 보이니 사람들은 그 옛 모습을 잘 모른다.

서면교차로 위는 다섯 방향에서 오고 가는 차들로 분주하다. 또 교차로 아래의 지하도에는 도시철도 1,2호선이 정차한다. 서면의 하루 유동인구는 백만 명에 이른다. 부산의 중심이며 약속의 장소, 쇼핑하기 좋은 곳, 서면은 언제부터 이런 모습을 띠게 되었을까?

서면은 조선시대 부산의 중심 구역인 동래읍성의 서쪽에 위치하여 서면(西面)이라고 불렸다. 황령산과 화지산, 백양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동천이 가로질러 흐르는 곳, 이곳은 주거지로써 명당자리이면서 논과 파밭, 딸기밭이 있던 농지였다. 일제 강점기에는 개항장인 남포동 지역과 구도심인 동래지역의 중간 지점으로 바다와 이어지는 동천을 따라서 공장들이 들어서며 공업지대로 개발되기 시작했다. 1937년 근대적인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현재와 같은 오거리 방사형으로 도로가 만들어졌다. 1960~70년대 산업화기를 거치면서 서면은 부산의 동서남북으로 오고 가기 좋은 편리한 교통 덕분에 만남의 장소로 자리 잡았고 문화, 유흥, 쇼핑시설들이 들어서며 부산의 대표적인 상업지역이 되었다.

전리단길





전포카페거리

서면은 높은 건물이 우뚝 선 넓은 대로보다 개성 있는 좁은 골목에 더 매력적인 세상이 펼쳐진다. 서면역 2번과 4번 출구 뒤편에는 최근 재미있는 이름으로 불리는 좁은 골목이 있다. 이른바 **만취길**, 작은 맛집과 술집들로 채워진 이 골목길은 예전에 물이 흐르던 작은 도랑을 따라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술에 취한 듯 길은 휘어지고 비틀거린다. 특히나 밤이 되면 이 좁은 골목에는 흥에 겨운 많은 사람들로 붐빈다. 나도 따라 분위기에 취해 어느 가게든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싶어진다.

만취길 주변은 한때 '배대포거리'라고 불리기도 했다. 고기구가 집들이 뽀뽀하게 들어섰던 이곳은 시대의 빠른 변화에 맞춰 사람들의 입맛과 유행에 따라 변하고 있다. 이제는 젊은 감각이 돋보이는 인테리어와 레트로 문화를 가득 담은 곱창집과 포차집들로 채워져 있다.

아직까지 이 주변으로는 작은 기계공장과 부품을 파는 공구상가들이 남아있다. 기름 냄새를 풍기는 소규모의 공장들이 원래 이 동네의 주인이었다. 부산은 한국전쟁 이후 산업화가 빠르게 이뤄지면서 서면 주변 지역에 큰 공장들이 하나둘 들어섰다. 대우버스, 경남모직, 제일제당을 비롯한 신발공장들도 많았다. 큰 공장에 필요한 기계와 부품을 수리, 판매하는 작은 공장들은 자연스럽게 서면 지역에 밀집하게 되었다. 제조 산업의 침체와 상권의 확산으로 지가(地價)가 상승하면서 공장들은 시외로 이전했고, 대다수의 납품공장과 공구상가들도 그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하고 있다.



만취길



부산 최초의 시립도서관인 부전도서관과 옛 중앙중학교가 있었던 놀이마루 사이에는 동천로라는 길 이 있다. 이 도로 아래로 동천과 만나는 부전천이 흐르고 있는데, 우리가 아스팔트 길 아래의 흐르는 물길을 모르는 것처럼, 사람들은 **전포카페거리**가 예전 한국전쟁 때 포로수용소의 천막 텐트가 잔뜩 펼쳐졌던 곳이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한다. 포로수용소가 자리 잡았던 직사각형 구역 위로 공장과 학교가 들어섰고, 이제 그곳은 전포카페거리로 변해 그 이름을 알리고 있다. 2017년,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주목할 만한 관광지로 전포카페거리를 소개했다. 공구상가와 작은 공장들이 떠난 자리를 개성 있는 카페와 음식점들이 하나둘 들어와 섞이며 만들어내는 거리의 이색적인 분위기가 사람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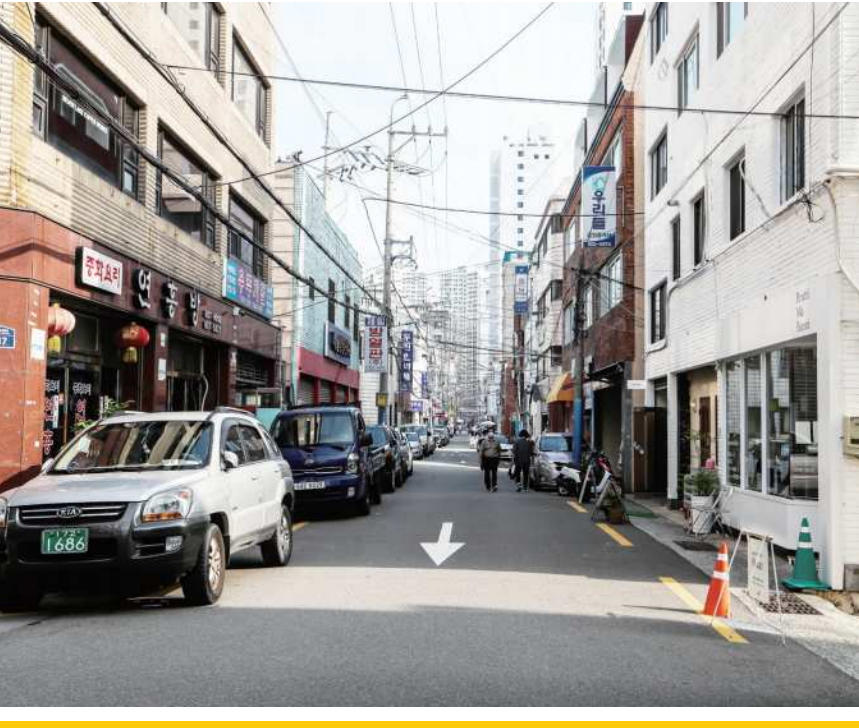
전포역과 NC백화점 사이에 형성되었던 카페거리는 주변지역으로도 확장이 되었고, 이전 이름도 다르게 불리기까지 한다. 기계부품을 다루던 상가건물이 있는 곳에 전리단길이 먼저 만들어지고, 황령산 아래 주택가 쪽으로는 전포사잇길이라는 이름으로 맛과 맛을 갖춘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다.

전포초등학교와 부산진소방서 사이에 위치한 **전리단길**의 중심은 길쭉한 블록 형태를 가진 4동짜리 상가다. 원래는 작은 공장과 부품상들이 몰려있던 곳이 지금처럼 번실했다. 음식점, 카페, 수공예 공방들이 칸칸이 들어서있다. 1층 매장은 자체를 쌓아두는 창고 역할을 하던 다락방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이다.

다락방을 없애고 천정을 높여 개방감을 크게 줄 수도 있고, 다락방 특유의 분위기를 실려서 오밀조밀한 콘셉트로 활용하기도 한다. 길게 늘어선 건물들 사이를 지그재그로 오고 가며 오늘의 미식 메뉴를 선택해 본다. 아무리 멋진 인테리어로 걸모습을 꾸며도 맛이 부족하면 금세 주인이 바뀌는 곳이 이곳, 전리단길이다. 미국에 온 것 같은 수제햄버거집, 행복한 맛의 프리미엄 떡볶이, 유쾌한 사장님의 손맛 좋은 퓨전 한식집은 내가 전리단길을 찾게 하는 이유다.

전포사잇길로 가기 위해 도시철도 2호선 전포역 방향으로 올라간다. 1984년까지 우암선 철로가 지나던 길은 지금은 왕복 8차선의 전포대로가 되었다. 한국전쟁기에 유엔 참전국 16개 국가에서 보낸 군수물자는 감만항에 도착했고 전선으로 빨리 보내기 위해 철로가 만들어졌다. 지금은 당시 기차길의 흔적조차 찾기 어렵지만 당시 우암선은 감만항과 부전역을 연결했다. 지금은 기차길로 단절되고 서면 변화가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주택가까지 상권이 형성되고 있다.

콘텐츠에 대한 자신감을 가진 이들이 전포사잇길에 유난히 많다고 느낀다. 이렇게 한적하고 숨겨진 곳까지 손님들이 알아서 자기를 찾아오게끔 하려면 남들과 다른 독특한 매력을 은근히 뽐내야 하기 때문이다. 손님을 왕처럼 대접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영업 매뉴얼로 마니아층을 만드는 곳, 주문은 지하 1층, 착석을 위해서는 계단을 걸어 올라가 2층까지 가야 하는 카페에는 개성 있고 힙(hip)한 젊은 친구들의 방문이 줄을 잇는다. 푸짐한 어머니의 손맛이 아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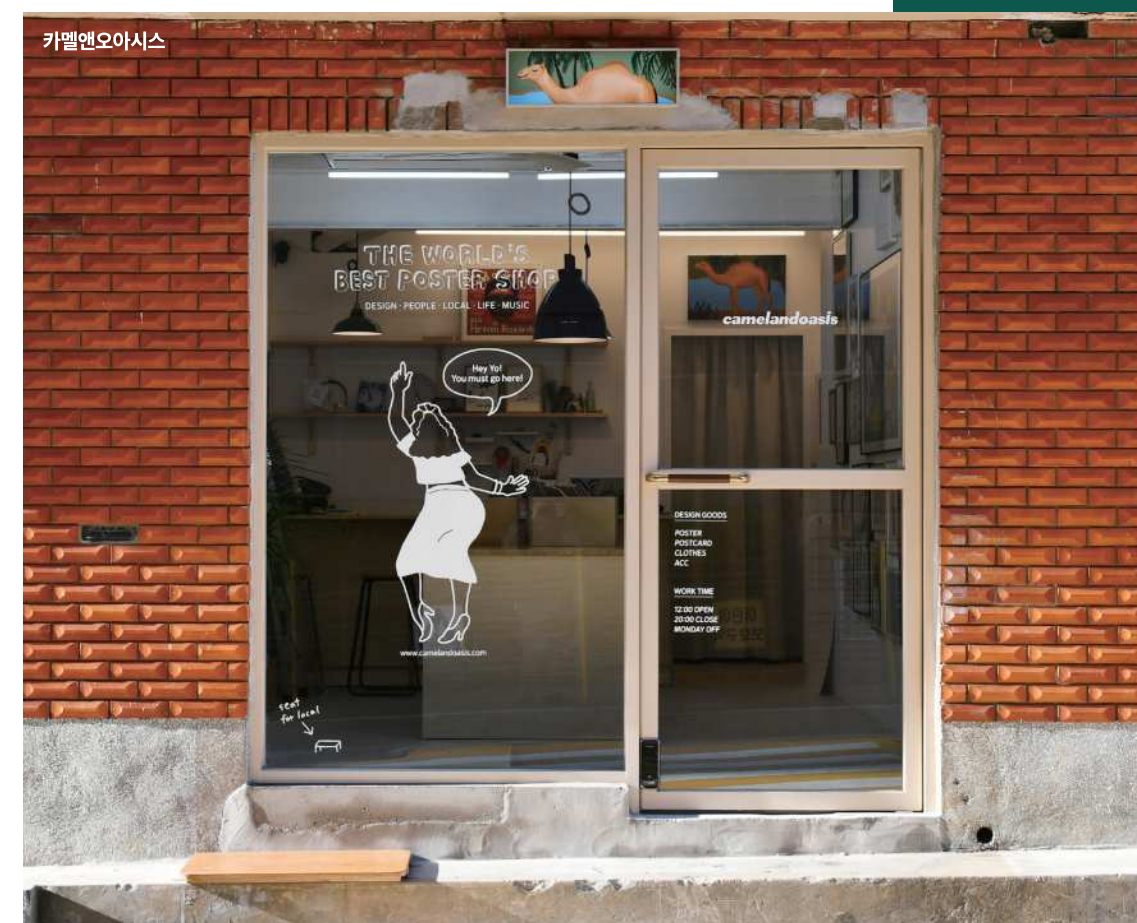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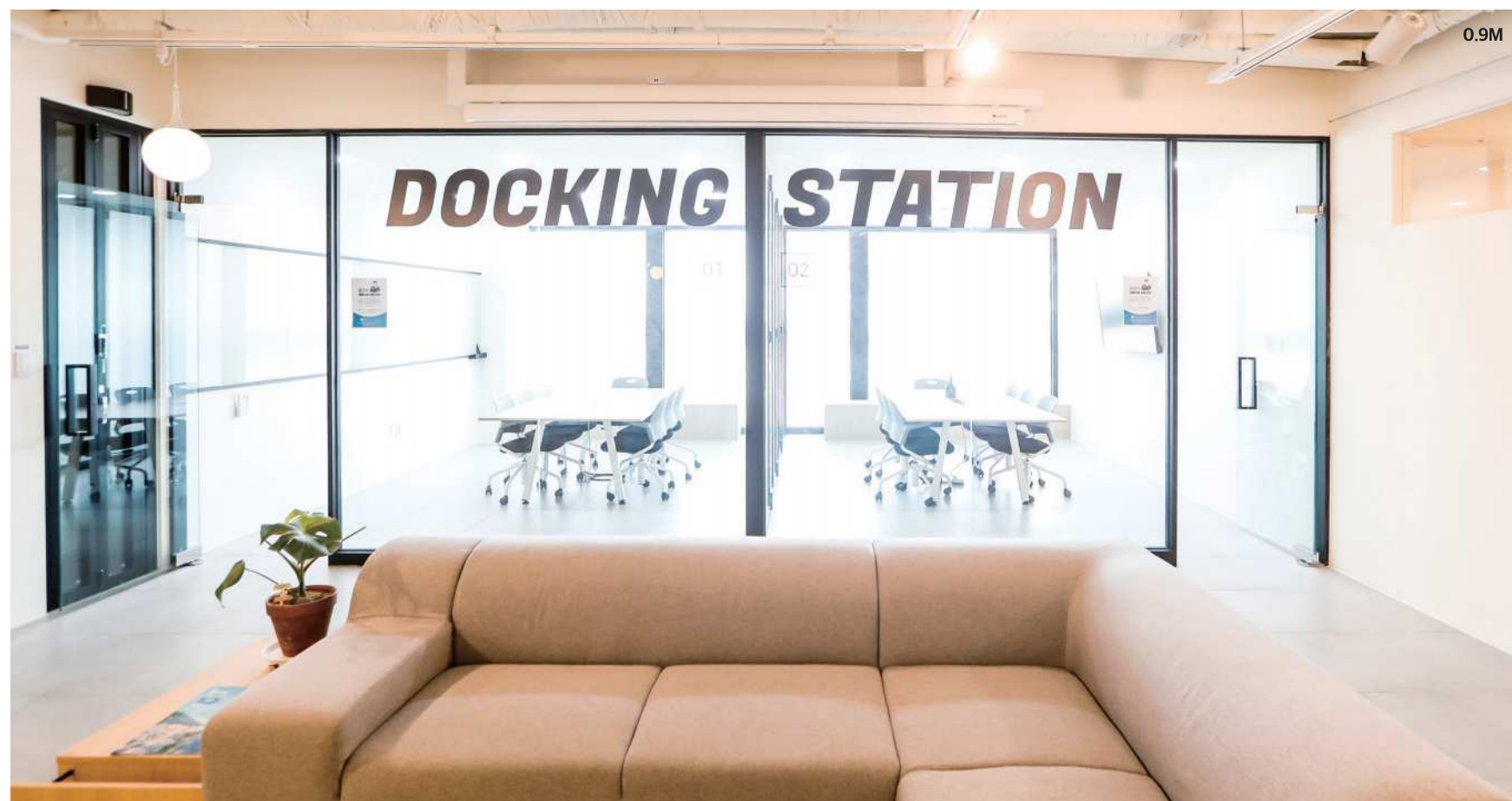
전포사잇길

식재료를 대하는 셰프의 철학과 손님을 대하는 절제된 친절이 매력적이기도 한다. 간판이 없거나 혹은 너무 작아서 그냥 지나칠 만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예술가의 아틀리에에 같은 공간에 들어서면, 어떻게 찾아왔는지 손님들이 벌써 자리를 꽉꽉 채우고 있다. 이렇게 자신만의 콘텐츠와 문화를 자신 있게 내어놓는 전포사잇길에서는 당연하고 신선함을 가진 곳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다.

행정구역상 서면동은 없다. 전포동과 부전동 일대를 보통은 서면이라고 부른다. 이번 브로컬리 투어는 전포동에 해당되는 곳으로 만취길, 전포카페거리, 전리단길, 전포사잇길까지 이어지는 골목 탐험을 떠나보았다.

전포동(田浦洞)은 발이 많은 포구라는 뜻으로 옛 전포동 지역은 바다와 연결된 물길이 흐르는 곳이었다. 지금은 농사지를 밭도 보이지 않고, 바다와 연결된 포구도 전혀 볼 수 없는 변화가 되었다. 예전의 전포라는 이름을 현재의 전포의 모습과 이렇게 연결해 보고 싶다. 옛 포구로 흐르던 물길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도 도로 아래에 흐르고 있으며, 밭 전(田)자와 같이 네모난 작은 가게들에서 개성 있는 문화를 일궈내는 곳이라고 말이다.





그래서 면

글 한정우(0.9M 개발팀장)
사진 윤민호, 굿굿웨더, 세로커피 제공

부산 최대 변화가인 서면은 최대 상권이자 지리적·문화적 중심지다.
서면역은 주중 10만 명 주말에만 40만 명이 찾으며, 2019년 연간 평균 승객 수가 14만 6천 명에 달하는 비서울권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역이기도 하다.
옛 서면의 중심이 되었던 1번가와 2번가 너머, 3번가 부근에 새로운 카페들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전포카페거리는 폭발적인 인기에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했고
그 영향으로 카페거리 인근에 새로운 상권이 형성됐다. 바로 전리단길과 서면 4번가다.
전리단길은 토요코인호텔 뒤쪽을 시작으로 현재 부전 지하철역 인근까지 영역이 확장되었다.
또 전포 지하철역 위쪽인 서면 4번가에는 6개월간 50개 내외의 점포가 자리를 잡았고
지금은 예전 전포카페거리만큼이나 활성화돼있다.
새로운 상권의 형성과 함께, 서면에서 개성 있는 인테리어와
새로운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선보이는 공간도 늘고 있다.
인상적인 공간과 브랜드의 꾸준한 관리를 통해 특별한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한다.
현재 서면 일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웰메이드 공간을 함께 둘러보자.

Seomyeon



a. 컨셉셰어오피스 0.9M,
그리고 시공간

관계를 가치 있게 만드는 적당한 거리

세어오피스는 다수의 사용자가 사무 공간과 공용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형태의 오피스를 말한다. 회의실과 OA 등 기반시설이 준비되어 있어 사업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컨셉세어오피스 0.9M는 부산 토종 브랜드로 서면에 2개 지점을 운영 중이다, 사무실 임대뿐 아니라 공용 공간을 다양한 문화 활동과 소통이 오가는 연대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관계의 거리를 의미하는 0.9M는 무의식적으로 자기 공간이라고 느끼는 거리이자, 손을 뻗었을 때 상대방과 닿는 거리라고 한다. 좋은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간격으로 너무 가깝거나, 멀지 않은 딱 0.9m 정도가 적당한 관계의 거리인 것이다. 이와 같이 0.9M는 관계를 하나의 가치로 여긴다. WARM&CHIC이라는 독특한 콘셉트를 바탕으로 FUN한 셰어오피스 문화를 지향한다. 효율적인 공간과 단순하고 직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 우주의 사업자들이 0.9M만의 남다른 소속감과 공동체 의식으로 협업하며 상생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새로운 관계 맺기의 시작과 경험의 즐거움

코로나19로 많은 시간을 집에서 머물거나 혼밥, 혼술, 혼연 등 혼자 하는 활동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지만 요즘 사람들은 학연, 지연 같은 막연한 교류나 친목으로 타인을 만나지 않는다. 반면 취미와 관심사를 중심으로 한 ‘느슨한 인간관계’를 지향하는 사람은 늘고 있으며, 이러한 인간관계의 변화 속에 ‘커뮤니티 문화’가 있다.

공간 기반 커뮤니티 플랫폼 브랜드, 시공간은 부산 로컬 크리에이터와의 협업을 통해 주제매주 만들기, 도자기 만들기, DISC성격검사 등 대중의 눈높이에 맞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1년 동안 4,000여 명의 누적 참가자가 다녀갔다. 또한 크리에이터가 모임과 콘텐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커뮤니티 홍보와 운영 피드백을 제공한다. 더불어 시공간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 간 네트워킹을 통해 협업 기회도 만들고 있다.

시공간을 통해 여태껏 스스로 규정해온 나 자신을, 조금 다른 시선으로 만나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빛이 물체에 부딪히고 굴절하며 빛깔을 내듯이, 다채로운 세계와의 관계 맺기를 통해 예상 밖의 나를 발견해보자.



b. **굿굿웨더**

청년 작가의 전시와 작업, 활동의 어려움

달맞이 고개와 해운대의 갤러리들은 청년 작가들에게 진입장벽이 높다. 대안으로 카페 전시공간을 찾아도, 카페의 상업적 성격 때문에 전시된 그림이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훼손되거나 간혹 처음과 다른 위치로 옮겨질 때도 있다. 또 감전동과 중앙동에 청년들을 위한 작업공간이 있지만 대개 중심가에서 벗어나 멀리 떨어진 언덕 배기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

굿굿데어의 공동대표 또한 이러한 활동을 겪었던 청년 작가였다. 저렴한 임대료의 작업 공간은 부족한 인프라와 접근성마저 떨어졌고, 카페에서의 전시 경험 또한 아쉬웠을 것이다. 이에 2명의 청년 작가가 작품을 전시하고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든 카페 공간이 바로 굿굿데다.

커피와 그림이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

굿굿데리는 인프라가 풍부하고 유동인구가 많으며, 수익을 유지할 수 있는 지역 중 서면 3번가에 자리를 잡았다. 카페 수익을 통해 최소한의 임대료를 부담하고 청년작가 시집, 그들 스스로 겪었던 카페 전시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전시 공간을 내부에 배치했다. 작업 공간이자, 전시 공간이자, 수익 공간으로. 복합문화공간, 카페, 굿굿데이가 탄생하게 된 것이다.

국궁데어에서는 매월 첫 번째 수요일에 새로운 작가의 작품을 전시한다. 부산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작가를 섭외해 전시를 진행하며, 열정적인 작가들을 모집하기 위해 노력한다. 전업 작가의 전시 사이에 청년작가의 전시 일정을 배치하여 초기 청년 작가들에게 기회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김유림, 가라미 작가를 포함해 총 16회의 전시가 진행되었고, 설치미술과 일러스트, 라이브 드로잉 등 다양한 기법으로 공간을 채워나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전시를 잠정 중단했지만, 하반기 옥탑공간을 활용한 공연을 기획 중이다. 브랜드 이름, GoodGoodWeather와 같은 편안한 마음으로 다양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C. 카멜앤오아시스

서울 냄새 그득한 공간

전포 지하철역 2번 출구, 서면 4번가 골자락에 위치한 카멜레온아이스는 최근 생긴 주변 공간들과는 조금 다른 성격의 공간이다. 포스터 브랜드이자 일러스트 아트워크와 디자인 굿즈를 판매하는 로컬샵이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가게의 문을 여는 것이 첫 번째, 주인과 소통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두 번째 관문이 될 것이다. 그 후 물은 머금은 스펀지처럼 공간의 매력을 흡수하면 된다. 'Design, People, Local, Life, Music'을 통해 공간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으며, Music은 나머지 4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중요한 요소다.

카멜레온아이스시의 공간은 언제나 다른 모습을 연출할 수 있도록 가변성에 중점을 뒀다. 벽에 걸려있는 일러스트를 바뀌는 것만으로도 다른 공간으로 탈바꿈한다. 그리고 넓은 쇼윈도는 외부에서도 내부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소통의 창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험을 중심으로 한 공간 설계

카멜앤오아시스는 경험이 중심이 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쿠바 여행경험담'이나 '멕시코 여행 중 집합한 소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다. 부산에서 커뮤니티를 지속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아직 여려모로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커뮤니티가 없다면 로컬 카페가 특색을 갖추고 생존하기 힘든 지금, '우리가 아니면 할 수 없다'는 대표의 소명감으로 꾸준히 모임이 운영되고 있다.

카멜레온아시스는 자신의 취향을 발견해나가는 곳이자 로컬커뮤니티를 지향한다. 여기서 로컬은 물리적인 공간이면서 곧 사람이다. 로컬이 가장 중요시하는 사람간의 '관계'는 공간의 변화와 상관없이 다시 이곳을 찾는 발길이 되어줄 것이다. 카멜레온아시스는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토대로 로컬과 사람간의 관계를 이어가는 공간이다.



d. 세로커피

독보적 아이덴티티를 살린 공간

세로키피는 한 소비재 회사의 사내커를 부부가 만든 공간이다. 부부는 퇴사를 결심하고 관심사를 찾아 공부를 시작했고 일본 나오히라 선, 중국 처우 카페터링 브랜딩과 아이덴티피가 확실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한다. 공간 매개 비즈니스에서부터 청년 창업지원 공간까지 살펴보면 참, 누구나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카페 형태의 창업형은 떠올리게 되었고 지금의 세로키피를 오픈하게 됐다.

부부는 이미 브랜드 포화 상태인 서울을 떠나 부산으로 내려와 전포동·문현동·초량동·마미동·부평동 등 곳곳을 둘러보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발견한 신암동의 매력에 빠져 이곳에 세로커피를 만들게 되었다. 이들이 신암동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옛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신암동은 80년대 봉제공장이 즐비했던 곳으로 '부산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지역이기도 하다.

신암동을 살리는 프로젝트

좁은 길이라는 뜻의 세로(細路)커피는 오로지 핸드드립으로만 커피를 판매하며, 더 나아가 신임동을 알리는 기획들을 펼쳐가고 있다. 지금까지 총 6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해왔고, 그중 '리-프로젝트'는 카페가 위치한 신임동 전체를 전시장으로 만들어 둘러볼 수 있도록 했다. 전시공간을 확보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마을 전체를 큐레이션 하는 대대적인 기획이었다.

세로커피의 목표는 소규모 공장들이 아직도 돌아가고 있는 이곳의 환경을 활용하여 신임동 전체를 하나의 메이커 스페이스로 만드는 것이다. 세로커피의 프로젝트들이 마중물이 되어 훗날 젊은 로컬 크리에이티브들의 활동과 새로운 공간, 콘텐츠들이 가득해지지 않을까 하는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세로커피는 처음 이곳에 터를 잡게 만들었던 신임동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지금도 다양한 기획을 시도하고 있다.



브리즈번, 여전히 사람 사는 곳

글·사진 김경희

호주로 떠난 부산너



사람이 바뀌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첫 번째는 시간 분배를 바꾸는 것, 두 번째는 만나는 사람을 바꾸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사는 곳을 바꾸는 것이라고 했다.

성인이 되기까지 알 속에 응크린 새처럼 한 발짝 내딛기도 무서웠던 고향을 떠나와, 새로운 나를 찾게 해준 부산에서 산 지 햇수로 6년 차. 내 돈으로 마련한 집 하나 없이 계약 기간에 맞춰 이 동네 저 동네를 전전하는 신세였지만 매번 주민등록증에 찍힌 '부산광역시' 라는 글자가 나를 어엿한 '부산주민'으로 인정해주는 것 같았다. 최근 수년 간 알게 된 나는 이전의 20년 동안 봐 온 나보다 훨씬 많은 것이 궁금한 사람이었다. 서구, 중국, 부산진구, 금정구, 다시 부산진구. 부산 안에 서도 몇 번의 이사를 거치고 나서는 장난삼아 내 사주에 역마살이 낀 게 아닐까 농담을 던질 정도로 안 가본 곳, 안 해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있었다. 나에게 부산은 그런 곳이었다. 눈 딱 감고 한 걸음 뛰었을 뿐인데, 세상 어디로든 발 뺄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준 도시.

부산이 좋은 이유는 누가 뭐래도 정(情)이었다. 많은 것이 바쁘고 빠르게 흘러가는 와중에도 사람 사는 냄새가 났다. 부산사람, 타지 사람을 나누지 않고 무슨 일이 있든지 그저 함께 물어주고 웃어주었다. 그런 부산에 살던 나는 서울도 제주도도 아닌 호주가 가고 싶었다. 다른 도시에 살아 봤으니 다른 나라에도 살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이었다. 그 생각이 들기 시작하니 지금 가지 않으면 앞으로 다 시는 갈 수 없을 것 같아 망설임 없이 비자를 신청하고 다니던 직장 을 그만뒀다. 많고 많은 나라 중에 하필 호주였던 건 비자를 받기에 까다롭지 않고 무엇보다 친한 친구가 살아본 나라였기 때문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였다. 출국 전날, 부랴부랴 짐을 싸며 뭐가 필요할 지 모르겠다고 호들갑을 떠는 내게, 그 친구는 "짐 늘리지 말고 거기 가서 사! 거기도 다 사람 사는 데야."라고 말했다.

캐리어 둘과 배낭 하나만 들고서 한국과 정반대의 계절을 사는 섬 에 떨어졌을 때는 당연히 모든 것이 낯설고 겁이 났다. 영어로 말 한마디 거는 것이 어려워 이미 알고 있는 말도 몇 번씩이나 번역기 를 돌려 확인하곤 했다. 혹시 눈 뜨고 코 베이지는 않을까 전전긍긍 하던 내게 마치 어제 본 사람처럼 친근하게 인사하는 사람들이 어 색하고 신기하기도 했다. 어느새 언어와 인종을 넘어서는 사람 사 이의 온기가 익숙하게 느껴지고, 이 넓은 땅덩어리에서 부산을 떠 올릴 정도로 금세 편해졌다.

하지만 머지않아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라는 말이 전혀 다른 부분 에서 현실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전염성이 대단하다는 바이러스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산도 바다도 건너다녔다. 호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가자,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 차별을 당했다는 이 야기도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다. 시선과 발언을 넘어 행동으로 번져가는 피부색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내 숨을 조여 왔다. 보행 신 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나와 내 친구의 앞을 "병 옮기지 말고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며 보란 듯이 운전해 지나가는 사람들 도 있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포가 만연하고, 사람을 만날 수 없 으니 당연했던 일상의 친절과 배려가 무색해졌다.

패닉에 빠진 듯했던 며칠이 지나자 혼돈 속에서도 조금씩 일상을 찾기 시작했다. 여러 단체에서 도시락과 생필품을 무료로 조달하고 많은 가게가 할인을 진행했다. 맥락 없는 혐오에 대해 함께 걱정해 주고 먼저 나서서 목소리 내는 사람들도 늘 곁에 있었다. 내가 일하 는 곳을 방문하는 오지(Aussie)들은 한결같이 친절하고 달콤한 말 투로 "다 잘 될 거야, Darling." 하며 나와 내 나라의 안부를 걱정했 다.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대신 여유가 늘었다. 함께 사는 하우스 메이트들과 매일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먹고, 영화를 보고, 노래를 불렀다. 차가울 줄만 알았던 타국에서의 위기를 두 팔로 감싸 안은 것은 여전히 사람들이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도는 동안 시간 분배도, 만나는 사람도, 사는 곳 도 바뀐 나는 아주 딴 사람이 되진 못했다. 여전히 침대 속을 좋아 하고 청소를 미루며 메뉴를 고르는 데 한참이 걸린다. 모두가 목적 지를 정해두고 달려갈 때, 여기저기를 방황하기만 하는 내가 이대 로 관촬을 하 허우적대기도 한다. 하지만 내가 이 기약 없는 긴 여행 을 후회하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로도 충분하다. 혼자라서 고민 한 적 없다는 것.

코로나19가 조금 멎치하는 요즘은 테라스에서 강물과 창문에 부서 지는 햇살을 한참 동안 구경하다가, 날씨가 너무 좋으면 고민 없이 책 한 권을 들고 나가 몇 시간을 풀밭에 앉아 있고 한다. 그러다 가 꿈은 이렇게나 멋진 도시에 살면서 일상을 기록하지 않는다는 건 후회할 짓이라는 생각에 일기를 쓴다. 몇 번이고 올라다보고 싶게 만드는 하늘과 어두운 틈이 없게 만드는 햇살, 그리고 따뜻한 사람 들이 함께하니깐.



From United Kingdom to Busan

제가 부산에서 1년 동안 지내게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부 산이라는 도시에 무엇이 있는지, 어떤 생활을 기대해야 할지 잘 떠 오르지 않았어요. 물론 예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은 있었어요. 하지 만 그뻔 서울 안에서만 내내 머물렀고 다른 지역으로는 전혀 돌아 다닌 적이 없었거든요. 부산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고작 바다와 사투리가 전부였어요. 하지만 지난 1년간 부산에서 살아보니, 솔직 히 이전 다른 지역에서는 살고 싶지 않아졌어요!

부산에서의 제 생활은 초반엔 단순했어요. 평일 낮에는 영어를 가르 치고, 일과를 마치고 나선 친구들을 만나 저녁으로 삼겹살이나 찜닭 을 먹으며 하루를 보냈어요. 또 주말 동안에는 해운대 해수욕장이나 감천문화마을처럼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지에 놀러가기도 했죠.

어느 날, 저는 친구들을 설득해 국립부산국악원에서 열리는 공연 을 보러 갔어요. 저는 항상 한국의 전통공연을 보고 싶었지만 그동 안 한 번도 보질 못했거든요. 친구들이 공연을 감상하는 동안, 저 는 무용수들의 유려한 움직임과 화려한 색상의 의상에 매료되었 어요. 적색과 청색 의상을 입고 칼을 사용하는 '진주검무'가 특히 좋았어요! 영국에는 강렬한 전통무용이나 화려한 전통의상이 없 거거든요. 그래서 춤을 보는 것만으로도 정말 재미있었어요.

부산에 살면서 직장에 서서히 적응할 때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 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강좌를 듣기로 결심했 조. 하지만 막상 무엇을 배워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던 중에, 그때 제가 봤던 무용 공연이 떠올라서 한국무용을 배우고 싶다는 생각 이 들었어요. 포털 사이트에서 몇 주 동안 시간을 들여 검색했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간단한 한국어로 무용 수업을 알아보 다가 한국무용학원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어요. 저는 곧바로 학 원으로 연락해 주말 수업에 대해 문의했어요. 담당자에게 문자를 보냈고 곧 수업을 들을 모든 준비를 마쳤죠.

첫 무용 수업을 받기 전엔 엄청 긴장했어요. 한국무용에 대해서 전혀 몰랐고, 사실 제 한국어 실력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며 첫 수업에 참석했어 요. 하지만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요. 무용 선생님께서 정말 친절하고 상냥한 분이셨거든요. 수업을 하며 지금 무슨 일이 일어 나고 있는지 제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선생님 덕분에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행 복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업을 들었어요.

곧 한국무용 수업은 제게 일주일 중 가장 중요한 일정이 되었어요. 한국무용에 대해 점차 알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수업에서 만난 친 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즐거웠거든요. 되돌아보면 저는 수업을 통해 춤추는 것 이상의 것을 배운 것 같아요! 한국 전통음 악과 역사는 물론 '손바닥', '시선' 같은 새로운 단어들도 많이 알게 되었어요.

또 무용 수업을 듣게 되면서 더 많은 무용공연들을 보고 싶어졌고, 국립부산국악원을 더 자주 찾게 되었어요. 특히 공연 하나가 계속 제 마음속에 남아 있는데요. 공연 속 무용수들이 전부 하얀색 의상 을 입고 만면에 미소를 활짝 띠며 무대 위를 뛰어다니는 모습이 아직도 떠올라요. 모두 행복해보였고 공연을 정말 즐기는 것 같았 어요. 그 춤은 알고 보니 부산 고유의 동래학춤이었죠!

그리고 작년엔 동래학춤을 배울 수 있는 워크숍을 알게 되어 정말 행복한 여름을 보냈어요. 8월이라 날씨는 너무 더웠지만, 공연도 보고 발동작도 배우기 위해 꽤 많은 사람들이 워크숍에 참석했죠. 그 시간들은 부산에서 제가 보낸 시간 중에서 꼭 간직하고픈 소중 한 추억 중 하나예요.

부산에서 제가 보낸 첫 해는 놀라운 경험들과 친절하고 상냥한 사 람들로 가득하답니다. 한국문화에 대해 많은 것들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은 쉽게 보지 못하는 전통무용을 통해 한국 전통문화의 일 부를 직접 경험할 수 있어 큰 보람까지 느낄 수 있었어요. 항상 흥 미롭고 신나는 이곳, 부산에서 시간을 보내며 앞으로 더 많은 것들 을 배울 수 있길 기대하고 있어요.

한국 전통무용에 빠지다

글·사진 Heather Stubbs

영국에서 온 부산너



From Busan to Australia

지도의 영역을 넓혀가는 로컬 아티스트

안유미 윽윽디자인 대표

흔히 생각하기에 지도는 길을 찾는 수단이다.
하지만 윽윽디자인에서 지도는 지역과 지역민이 만나 수단을 넘어
하나의 콘텐츠로 재탄생된다.
지역의 장점을 알리고 문제점의 해답을 찾는 지도,
지도라는 콘텐츠의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발굴해가고 있는
안유미 대표를 만났다.

인터뷰·글 김정원 사진 윤민호, 안유미 제공

안유미 대표가 추천하는
서면에서 알찬 하루 코스!

부산시민공원

서면시장

점음의 거리

전포카페거리

호천마을

부산시민공원에서 고요한 산책

서면시장에서 이열치열 든든한 돼지국밥

점음의 거리에서 즐거운 쇼핑

전포카페거리에서 커피와 디저트로 휴식

호천마을에서 야경으로 마무리



안녕하세요.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도 기획과 일러스트를 활용한 지도 디자인을 하는 1인 기업, 윽윽디자인 대표 안유미입니다. ‘뽕천동 지도’와 ‘서면 돼지국밥 가이드맵’처럼 지역의 특정 콘텐츠를 담거나 관광지도, 축제 가이드맵, 스텝투어 북 등 관광·축제 지도도 함께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1인 기업을 결심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졸업하고 디자인 회사에 입사를 했어요. 애착을 가득 담아서 일하고 싶었는데 제가 생각했던 회사생활과 많이 다르더라고요. 직장생활이 저와 잘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당시에 들어왔던 지도 작업 하나가 월급보다 더 많았거든요. 한 달에 하나만 해도 지금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어 혼자서 일해보자 싶었죠.

특별히 지도에 꽃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어려서부터 가족 여행을 자주 다녔는데요. 가족여행의 시작은 아버지께서 휴게소에서 사 오신 전국 지도에 목적지와 쉬어갈 곳들을 표시하는 것이었어요. 지도는 저에게 좋은 추억이자 행복이었어요. 또 시각디자인을 전공하고, 잘하는 작업, 좋아하는 작업, 수입 등을 분류했을 때 모두 해당하는 것이 지도이기도 했어요.

모바일이나 웹이 아닌 종이지도만의 아날로그 감성이 있어요. 여행 가서 그 지역 지도를 가져오는 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내가 갔던 곳을 직접 표시하고 그때의 추억까지 함께 보관할 수 있으니까요. 사실 어플이나 온라인 맵도 만들고 싶긴 하지만 그 지도는 남녀노소, 특히 노인 분들은 상대적으로 접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면에서 종이지도는 진입장벽 없이 모두가 즐길 수 있죠.

지도 하나를 제작하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대략적인 지도 콘셉트만 있는 경우에는 지도 기획부터 구체적인 지점까지 고민해서 함께 결정하고요. 또 하나의 지도를 제작하기 위해서 여행자로, 디자이너로, 그리고 작업의뢰자의 입장이 되어 3번 이상 현장을 탐방해요. 계절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현장탐방은 매번 즐겁습니다. 그래서 지도 작업을 할 땐, 항상 행복해요.

지도 작업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이 있다면?

지도를 보는 사람의 입장을 늘 생각해요. 아무리 디자이너, 의뢰자가 만족하는 지도를 만들더라도 보기에 불편하면 안 되잖아요. 지도를 편하게 휴대할 수 있도록 한 손에 쥌 수 있는 너비로 제작하고, 쉽게 찢어지지 않도록 종이의 두께나 접는 방법까지 고려하죠. 뿐만 아니라 대상 연령대와 배부 장소 등 섬세한 부분까지 생각해야 보는 사람이 쉽고 편하게 콘텐츠를 받아들일 수 있고, 좋은 추억까지 남길 수 있는 지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기억에 남는 작업 하나를 소개해주세요.

2019년에 제작한 [남남 맛있는 서면지도-4개국어]입니다. 지도 콘셉트는 ‘서면 맛집지도’였어요. 서면에 맛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최대한 많은 검색으로 포털사이트 리뷰, SNS 해시태그 등 데이터를 모아 저만의 기준으로 맛집 리스트를 뽑고, 모든 가게에 방문해서 먹어본 뒤, 맛집을 최종 선정하여 만든 지도입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 간판을 읽기 힘들기 때문에 지도 뒷면에 간판을 모양 그대로 그려놓거나 식당에서 자주 쓸 만한 문장들을 주려서 적어놨어요. 그 문장을 손으로 가리키기만 해도 소통이 될 수 있게. 실제로 외국인들이 지도를 들고 가게에 방문한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고, 저도 길에서 이 지도를 들고 다니는 관광객들을 많이 마주쳤어요. 정말 뿌듯한 작업 중 하나예요.



남남 맛있는 서면지도-한국어

청소년과 지역민을 대상으로 지도 수업도 하시죠?

네. ‘우리 동네 지도 만들기’ 수업을 하고 있어요. 청소년과 지역민들이 직접 우리 동네의 문제점 혹은 자랑거리 등을 콘텐츠로 우리 동네에 대한 지도를 만드는 수업이에요.

예를 들면 사상구 청소년들과 사상구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지도를 찾는 과정에서 [오 마이 갓! 덕포시장]을 만들었어요. 주변 재개발로 거주자들이 줄어들면서 덕포시장 방문객이 확 줄게 되자, 청소년들과 함께 덕포시장을 알리기 위한 지도를 만들게 된 거죠.

작업 특성상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지도 강의는 전부 취소됐고요. 축제지도나 여행지도를 비롯한 예정된 작업의 80-90% 정도가 잠정 중단되거나 취소되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시간 있을 때, 열심히 놀자는 생각이라 집에서 엄마표 집밥을 먹고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좋았어요. 6월부터는 중단된 일이 다시 시작되고 있어서 원만큼 이제 열심히 일해야죠.

앞으로 해보고 싶은 작업은 무엇인가요?

하고 싶은 일은 늘 많아요. 제 공간 ‘윽윽랜드’를 만들어 부산 방문객들이 여행의 시작을 제 지도와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지도 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선 늘 재미난 콘텐츠에 대한 생각을 해야겠죠. 여행지의 추억을 지도로 남겨 보관할 수 있는 여행자 원데이클래스도 만들어 운영해보고 싶고, 지도 중심의 교재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수업도 해보고 싶어요. 제 계획과 생각은 그때 그때 바뀌지만, 확실한 건 ‘함께 일하면 즐거운 사람, 일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숨 돌리러 시장 간다

부전동 부전시장

글 김지현 사진 윤민호, 김지현 제공



11톤 트럭을 모는 아버지는 부산과 강원도를 오가며 화물을 나르다가 주말이면 집으로 돌아온다. 안동 산골에서 태어나 부산에 정착해 평생을 살았지만 아버지의 삶은 길 위에 있다. 수많은 아파트와 호텔, 빌딩이 아버지가 나른 자재들로 지어졌다. 라면과 책상, 수입산 씨앗이 아버지의 트럭을 타고 전국 곳곳으로 팔려갔다. 그날그날의 동심마다 정식을 시키면 계란후라이를 서비스로 해주는 기사 식당, 된장찌개 정식이 괜찮은 휴게소, 샤워 시설이 있는 주유소의 목록을 알고 있다. 여전히 안동 말씨가 배어있고 서울에 가면 고민 없이 부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의 모든 이야기는 고운 입자처럼 전국 곳곳에 흩뿌려져 있다. 농사짓기 싫어 고향에서 도망 나와 자리 잡기 위해 부산을 떠돌던 삶은 이미 수십 년 전 일이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매일 떠돌며 살고 있다.

화물차 간이침대에서 쪽잠을 자다 토요일 오전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는 개운하게 씻고 시장 구경을 나선다. 보통 집에서 가까운 구포시장엘 가지만 언양 장날이면 언양 시장으로, 또곤한 공국이 생각나는 겨울이면 이른 새벽의 부전시장으로 차를 몰고 간다. 아버지는 시장 마니아다. 어머니와 내가 마트의 카테고리별 구역에 속속들이 파악하고 있을 때 아버지는 어느 시장의 어느 떡집에는 무슨 떡이 맛있고 어느 시장에는 수수부꾸미를 팔고 시장 초입 어떤 아저씨가 파는 굴이 맛있는지를 꿰고 있다. 특히 떡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시장 사랑은 정말이지 유난하다. 마트에서 2,500원짜리 떡 한 팩을 3개 사면 7,500원이지만 시장 떡집에서 사면 6,000원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시간과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호박죽과 팔죽은 때마디 찾는 아버지의 별미인데 시장엘 가면 거대한 솥에 사시사철 뭉근하게 끓이고 있다. 그뿐인가. 자글자글한 기름에 튀겨내어 설탕 발에 굴린 도나쓰, 단돈 1만 원이면 바지, 티셔츠, 주머니가 많은 작업용 조끼, 노랑과 파란 째한 색깔의 운동화를 종류별로 살 수 있으니 아버지에게겐 백화점이나 다름없다(실제로 아버지는 구포백화점이라고 부른다). 아버지에게 시장은 단순히 필요한 물건을 사러 가는 곳을 넘어서서 그곳에 즐비하는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어떤 위안과 소소한 만족감을 주는 장소이다. 어쩌면 시장은 낯선 도시 속 막 출항한 산골 소년에게 안정감을 주었을 유일한 곳이었는지도 모른다.

부산에 막 도착한 안동 소년은 어느 이주자들처럼 당시 부산을 지탱하고 있던 태화고무와 대우실업에 다녔다. 매일 점심으로 나오는 밀겉고 불어터진 짜장면이나 국수에 질리고 또 남 밑에서 일 못 하는 특유의 기질(?) 탓에 공장을 뛰쳐나와 당시로는 고급 기술이었던 운전면허를 취득한 소년은 부전시장 야채상 '부산상회'에서 트럭 운전을 시작한다. 그때부터 부전시장은 아버지의 놀이터가 됐다. 소를 치고 쌀보다 감자를 더 많이 먹었던 시골 출신에게 낯선 대도시에서 유일하게 정 붙일 곳이 시장 풍경이었다. 피난민들이 삼삼오오 꾸려 만든 부전시장에는 어릴 적부터 눈과 발에서 보고 자란 작물들이 가득 있고 이주해 온 이들의 절실함과 투박함, 정이 있었다. 아버지가 익히 아는 것들과 비슷한 마음들이 있는 곳. 그래서 그 속에 들어서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장소. 아버지에게 시장은 그런 곳이었다.

부산상회에서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운전 인생에 막을 올렸다. 갓 면허를 딴 초보 운전사는 야채상 사장과 함께 처음 제 손으로 운전해 강원도를 다녀왔고 고르지 않은 산길을 달리며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 고추철이면 고추밭으로 원주 야채 공판장으로 아버지의 서툰 2.5톤 트럭이 다니며 부전시장으로 작물을 날라왔다. 애써 한 차 가득 실어온 고추 더미가 소나기에 물려져 한 철 장사를 망치고 어떻게든 팔아보려는 사장을 따라 일당쟁이 아주머니들과 고추장이씨를 담가 팔고 하며 아버지는 인생을 배웠다. 제철 작물을 찾아 전국 곳곳을 누비던 아버지는 그때 깨달았는지도 모른다. 앞으로 남은 생을 이렇게 길 위를 달리는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걸. 그리고 설은 도시 생활에 지칠 때면 고향 내용이 묻어 있는 시장의 품으로 자꾸만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걸.

그렇게 40년째 운전사로 살고 있는 아버지는 이제 자기의 지난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자식들을 데리고 시장엘 간다. 어릴 적 아버지를 따라 쌀튀밥을 만들려, 제일 먹집에 떡을 사러 구포시장을 누볐다(꼭 제일 떡집 떡을 사러 가는 것이다). 날이 추워지면 부전시장 앞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공국 장사는 특히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든든한 아침 식사였다. 진하고 고소한 죽 같은 뜨거운 공국물에 튀긴 찹쌀을 넣어 노점 앞에 선 채로 후룩후룩 먹다 보면 금세 몸이 따뜻해졌다.

해 뜰 무렵이면 이미 장사를 접고 들어가는 공국의 맛을 보여주고 싶어서 새벽 다섯 시에 아버지는 눈도 못 뜨는 동생과 나를 데리고 부전시장을 찾았다. 컴컴한 새벽의 풍경은 생각보다 소란해서 어린 나는 놀라곤 했다. 내겐 꿈속을 헤매고 있을 시간인데 공국을 떠먹으며 숨을 돌리는 기사들을 보며 택시를 몰던 때의 아버지의 하루를 그려보곤 했다. 어릴 적엔 콩의 텅텅한 맛 때문에 끈덕한 찹쌀만 씹숙 골라 먹었는데 어느샌가 날이 추워지면 공국 특유의 그 맛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그러다 보면 내가 잠든 시간에 길 위를 달리는, 그러다 공국 한 그릇으로 몸을 데우고 숨을 돌리는 아버지의 시간 속에 잠시나마 들어가게 된다.

여전히 시장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의 삶 가운데에 있다. 한가로운 주말, TV 프로그램을 돌려 보는 것에 지친 아버지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간다. 돌아올 땐 어김없이 까만붕다리 안에 딱 세 팩이 들어 있다. 당신이 좋아하는 공떡과 내게 줄 절편과 송편이다. 내가 새 운동화를 사면 얼마 주고 샀냐고 묻고는 “그런 거 구포백화점 가면 만 원만 주면 산다.” 하고 이번에 산 신상이라며 파란 운동화를 자랑한다. 수수부꾸미를 좋아하는 나를 위해 구태여 부전시장에 다녀오고 신심 쓰듯 아버지의 시장 구경에 동행하는 내게 보상이처럼 얼음이 동동 띄워진 단술 한 잔을 사준다. 단술이라면 물보다 더 좋아하는 아버지는 그때 사주는 단술만큼은 한 입 권해도 “니 다 무라” 하면서 내게 양보한다. 그렇게 부전시장 곳곳을 쫓으며 옛날엔 여기 뭐가 있었는데, 저기 저 코너바리에 진짜 맛있는 김밥집이 있었는데 하며 당신의 시간 속으로 나를 안내한다.

어머니는 여전히 더러운 때를 참부로 묻히고 편하게 막 입을 아버지의 작업복을 시장에서 산다. 주머니가 많이 달린 조끼와 바지는 꼭 시장에 가야만 살 수 있다. 그런 옷가지들은 맨시보다 편리함을, 촉감을 위한 재질보다 잘 상하지 않도록 질긴 옷감으로 만들어졌고 무엇보다 싸서 언제든 얼마든 참부로 입을 수 있었다. 시장에는 고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한 입을 거리와 먹거리가 가득했다.

우리는 아버지를 떠올리면 시장을, 시장을 떠올리면 당연히 아버지를 떠올린다. 시장과 아버지는 한 몸처럼 닮았다. 투박하지만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 똑같다. 규격화된 과일과 채소가 진열되어있는 대신 가게마다 각각각색의 양과 모양의 소쿠리 속 채소들이 말끔한 포장 대신 까만붕다리에 미터터질 듯이 담겨 손에서 손으로 건네지는 곳. 소란한 흥정이 오가는 치열한 골목을 누비다 보면 금세 기진하지만 달고 시원한 단술 한 모금을 삼키고 나면 한숨 크게 들릴 수 있다. 양손 가득 무거운채로 채 빠곡한 골목을 빠져나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다시 치열하게 살다가 주말이면 아버지와 함께 시장엘 가서 단술을 마시고 떡을 사 먹으며 한숨 크게 들릴 것이다.



김지현 소설가

1인 출판사 '네시 오십분'을 운영하며, 2019년 부산일보 신춘문예 소설 당선되었고 산문집 『저기요, 선생님!』 등을 출간하였다.





책으로 소통하는
특별한 경험,

베이트리 북클럽

장재근 베이트리 북클럽 대표

반복된 일상을 넘어 '꾸준한 독서, 의미 있는 만남'

지금까지 3,000권이 넘는 책을 함께 읽었고, 500회 이상의 독서모임이 열렸으며, 누적 회원 수 1,200명 돌파를 앞두고 있다. 지금도 매달 100~200명의 인원이 10명 내외의 소모임으로 나누어 책으로 소통하기 위해 베이트리로 모인다. 책을 읽고 독후감도 쓰고, 책을 읽고 떠오른 질문들을 함께 나눈다. 뿐만 아니라 모여서 영화도 보고, 음악도 듣고, 요가도 하는 다채로운 소규모 기획들로 베이트리의 일 년은 바쁘게 흘러간다.

장재근 대표는 사람들이 책을 읽고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독서모임을 시작했다. 책을 꾸준히 읽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성장할 수 있으며, 같은 책을 읽은 사람들과 모여 이야기를 나누면 즐겁기까지 하다. 그렇게 7명에서 시작한 모임이 1년 만에 누적 회원 300명이 넘어서면서 모임을 지속하기 위한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제는 사람들을 돕는다고 생각합니다.

책 읽는 것을 돕고, 독서모임이 즐거워지도록 돕고 있어요. 각 모임마다 퍼실리테이터(이하 'FT')라고 부르는 조력자들이 있어요. FT들도 처음에는 멤버였다가 독서모임에 숙련되어 다른 멤버들을 도와주고 있죠.

커뮤니티가 발달한 나라에서는 퍼실리테이터에 대한 전문과정이 마련되어 있을 정도로 모임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FT의 역할이 중요하다. FT들이 좋은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토론과 대화, 조직문화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하고 이를 공유하는 것 또한 장재근 대표의 역할이다.

벽면 가득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있고 은은한 캔들 향기와 음악이 흐르는 이곳은 바로 베이트리 북클럽(이하 '베이트리')이다. 장재근 대표가 차를 준비하는 소리를 들으며 아담한 공간을 눈으로 쓱 둘러본다. 가구부터 페인트칠까지, 구석구석 그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 열 평 남짓한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가 오갈까. 어느덧 테이블 위에 준비된 카모마일차의 열음이 천천히 녹으며 차를 식혀주었다.

인터뷰 글 김정원 사진 윤민호, 장재근 제공



베이트리 북클럽 <https://www.baytreebookclub.com>

성장과 소통, 그리고 연대로 이어지는 베이트리

베이트리를 운영하면서 힘든 일도 많았다는 장재근 대표. 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사람들이 베이트리를 통해 책을 꾸준히 읽는다는 것과 본인을 포함한 멤버들 스스로 생각이 바뀌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이다. 혼밥, 혼술, 혼영 등 혼자가 자연스러워진 요즘인데, 장재근 대표는 오히려 더더욱 모여야 한다고 외친다.

모이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의미 있는 일이거든요. 모든 커뮤니티에는 공유할 수 있는 어떤 '콘텐츠'가 있어요. 베이트리는 그 콘텐츠가 '책'이지만 이외에도 같은 관심사를 공유하고 공감하면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죠.

앞으로 커뮤니티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타인에 대한 공감과 연대가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으니까요. 책도 혼자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함께 모여 공유하면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매번 모임 때마다 카페를 전전하며 모임장소를 구하는 일도 만만치 않았다. 그래서 장재근 대표는 비용이 들더라도 부산의 중심지, 서면에 베이트리 공간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다. 회원들은 이제 '여기가 베이트리지' 하며 이곳으로 모인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모임 수 있도록 공간을 넓혀가고 싶다는 바람 속에는 모임에 대한 장재근 대표의 애정이 물론 담겨있다.

제가 조금 수고를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든 책을 읽게 되니까요. 많은 분들이 '베이트리 아니었으면 내가 책을 과연 읽었을까?' 라고 말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너무 보람 차고 기뻐요. 그래서 계속하는 것 같아요.

책으로 더 많은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베이트리에서는 나이와 직업을 묻지 않는다. 처음 보는 사람들 앞에서 말을 꺼낸다는 것이 어렵고 어색할 수 있지만 한 시간만 지나도 사람들은 몰입해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장재근 대표는 일단 모임에 와서 한 번 경험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8명, 이 정도 인원은 어디서든 쉽게 모일 수 있잖아요. 여기서 내 의사를 말하는 경험의 많이 쌓여야 어디서든 자신감 있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 역시 엄청 좋아짐을 느껴요. 낯선 사람과도 이야기 나누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인간적인 관심도 들고요. 저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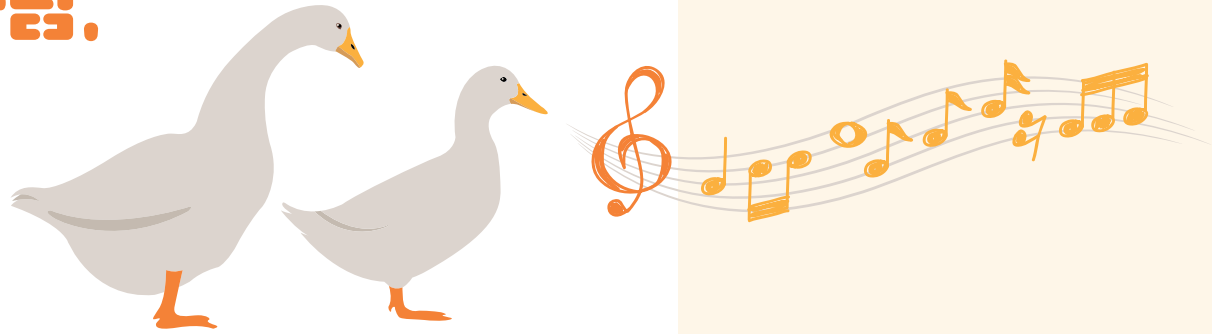
출판시장에는 무수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온다. 트렌드는 계속 바뀌고, 사람들의 관심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어떤 모임을 기획해야 할지, 어떤 책으로 이야기하면 좋을지가 요즘 베이트리의 가장 큰 고민이다.

책 선정은 정말 중요해요. 모임 하는 책은 첫 책만 FT분들과 협의해서 정하고 이후에는 멤버들끼리 결정하고 있어요. 선정된 책이 좋지 않으면 다음 모임이 힘들어지니까 책 선정에 대한 여러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어요. 아직 완벽한 모임은 아니라서 때때로 생기는 문제들을 계속 고민하고 풀어나가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혼자가 익숙한 시대, 하지만 예상치 못한 모두의 위기를 이겨내는 것은 바로 사람 간의 연대다. 독서모임의 힘을 믿는 장재근 대표와 공감과 연대를 무성하게 피어날 베이트리 북클럽의 앞날을 기대한다.

작은 거위의 휘파람. 가볍게 오카리나

글 김정원



이탈리아 방언으로 작은(Rina) 거위(Oca)를 뜻하는 오카리나(Ocarina)는 300년이 훌쩍 넘는 오랜 시간 동안 이탈리아에서 사랑받아온 장난감이었다. 당시 로마 제왕들이 만들어 시장에 내다 팔던 오카리나를 우연히 접한 주세페 도나티(Giuseppe Donati)는 곧 이 악기에 매료되었다. 정식 교육 한번 제대로 받아본 적 없지만 어릴 적부터 악기에 큰 재능이 있었던 그는 연구를 거듭한 끝에 17살의 나이에 정확한 음계를 갖는 현대의 오카리나를 개발해냈다.

오카리나를 닮은 악기들은 이미 약 12,000년 전부터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어 왔다. 마야를 비롯한 잉카, 아즈텍 문명에서도 유사 악기의 흔적이 있다. 하지만 당시의 악기들은 현대적 의미의 오카리나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고 흠으로 도자기를 빚어 만든 작은 항아리 모양의 악기이자 주술적 도구로 추정된다.

오카리나는 도자기부터 나무, 유리, 금속, 동물의 뼈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진다. 오카리나의 재료에 따라 소리의 결도 다르다. 시중에는 초보자를 위한 플라스틱 오카리나가 저렴한 가격과 간편한 관리로 각광받고 있다. 오카리나의 기본적인 형태는 동글고 기다란 몸체에 취주구가 아래로 튀어나와 있는 T자 형태가 가장 기본적이지만, 그 외에도 납작한 원형이나 랭글리(Langley)형 등 의도에 따라 다양한 모양으로 제작되기도 한다.

오카리나는 튀어나온 취주구로 공기를 불어넣고 열두 개의 구멍을 손가락으로 막거나 열어 연주한다. 입으로 부는 관의 개수에 따라 단관형과 다관형으로 나뉘는데, 주로 다관형은 음역대가 좁은 오카리나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음역대의 오카리나들을 하나로 합쳐놓은 경우가 많다.

음역대에 따라 오카리나의 크기가 구별되는데, 크기가 작을수록 고음을 내고 저음으로 갈수록 크기가 점점 커진다. 관의 개수에 따라 구멍의 개수도 늘어나며 구멍이 많을수록 더 많은 음을 표현하고 화성 연주도 가능하다. 초보자용으로는 소프라노와 테너 사이의 음역대인 알토 오카리나가 가장 적합하다.

오카리나는 휴대가 간편하고 관리가 쉬워, 다른 악기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고 아이들 교육용으로도 인기 있는 악기다. 운지법만 제대로 익히면 짧은 시간 안에 동요 한 곡 정도는 거뜬히 연주할 수 있지만 모든 음역대의 소리를 깨끗하게 내기 위해서는 호흡과 정확한 운지 등 계속된 연습이 필요하다. 또한 혀를 사용하는 '팅잉(tonguing)' 기법을 통해 각 음을 정확히 끊어주어야 음정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간단한 연주법으로 청아하고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매력적인 오카리나, 작고 귀여운 거위를 닮은 오카리나로 반려악기 만들기에 도전해보는 것은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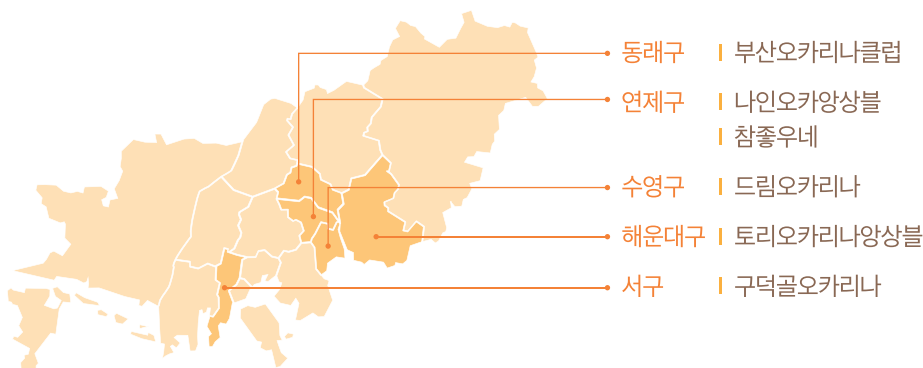


혼자서 어렵다면 함께 해요!

부산시 기악 생활문화연합회 소속 오카리나 동아리

가입문의

한성1918-
부산생활문화센터
051-257-8035



- 동래구 | 부산오카리나클럽
- 연제구 | 나인오카양상블 | 참좋은네
- 수영구 | 드림오카리나
- 해운대구 | 토리오카리나양상블
- 서구 | 구덕골오카리나



초보가 명심해야 할 오카리나 연주 팁!

운지법을 정확히 짚자

오카리나 연주의 핵심은 바른 운지법과 구멍 막기다. 손가락 끝보다 손가락 중앙 전제를 사용해 구멍 전제를 덮어주는 느낌으로 막아보자. 가장 기본을 지키는 것이 완벽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유튜브 등 온라인 자료를 심분 활용하자

포털사이트, 유튜브 등 온라인에 '오카리나'라고만 검색해도 파지법과 운지법처럼 기초적인 정보부터 악보, 연주곡 등 다양한 자료들이 쏟아져 나온다. 초보를 위한 수업 영상도 많이 참고해보자.

YouTube 오카리나

쉬운 연주곡을 먼저 공략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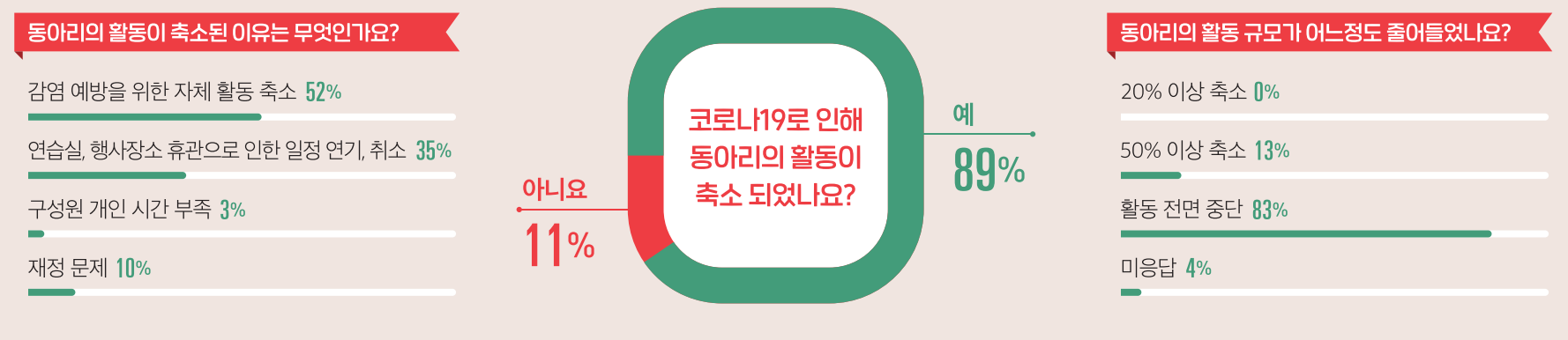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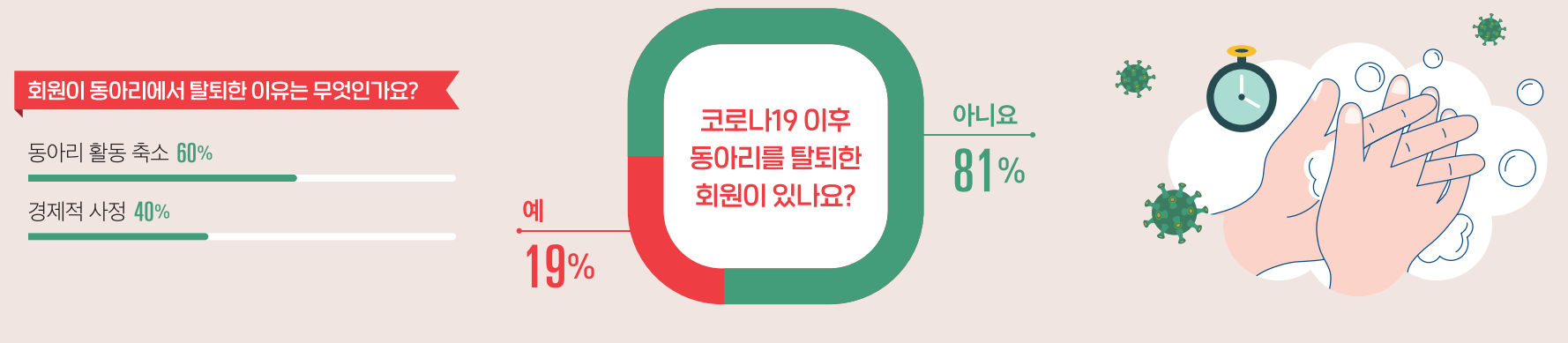
처음부터 어려운 곡을 선택한다면 반주조차 끝내지 못하고 실패하게 된다. 오카리나 초급자를 위한 추천곡이나 좋아하는 영화 OST 중에서도 난이도가 낮은 곡부터 연습해보자.

코로나19와 생활문화 연합회 활동
(부산 생활문화 연합회 대표 26명 참여, 2020.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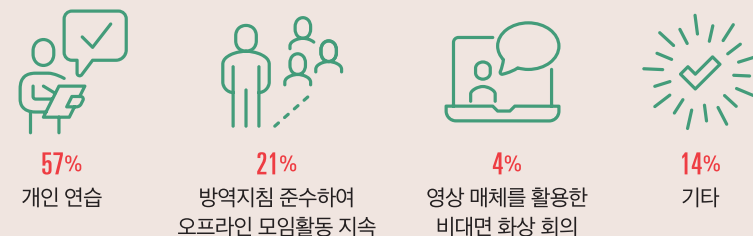
코로나19 시대

부산 생활문화 연합회 활동 근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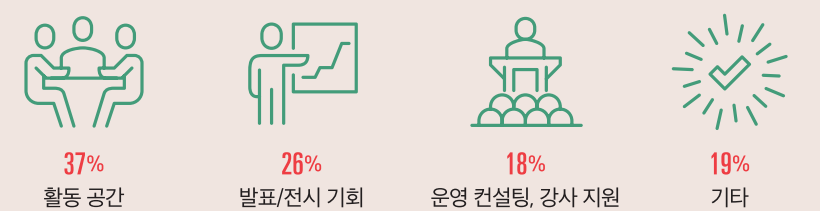
현재 부산에는 907개의 생활문화 동아리가 있으며, 15,600명이 넘는 회원들이 소속되어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2019년 기준)
일상 속 문화예술을 통해 자아실현과 즐거운 소통을 만들어가는 부산의 생활문화 연합회는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하면서 활동에 적신호가 켜졌다. 코로나19가 닥친 부산 생활문화 동호회들은 그동안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코로나19 이후 어떻게 동아리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활동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우리 동아리에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우리 동아리의 노하우

- 연습실에서 공연 연습을 한다.
- 개인위생 관리, 생활 속 거리두기를 철저히 지킨다.
- 온라인으로 서로의 안녕을 묻고 소통한다.
- 지원 사업에 공모하고, 채팅메신저와 영상을 활용하여 활동했다.
- 각자의 작품과 하고 싶은 활동들을 카톡 채팅방을 통해 공유하고 있다.
- 밴드(어플)와 SNS로 소식과 동영상상을 공유한다.

다른 동아리 회원 또는 독자에게 전하고 싶은 응원의 한 마디!

- stay strong, 강하게 버텨시다!
- 끼 많은 우리 문화인들, 긍지를 가지고 코로나19로 힘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문화인이 됩시다.
- 언제나 마음을 가깝게 유지하며 코로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킵시다.
- 코로나19 잘 이겨내시고 생활문화동아리 모임으로 기쁨을 얻어요!
-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한여름 밤의 끝을
더욱 특별하게,

호천마을



호천문화플랫폼&호천생활문화센터

은하수가 쏟아져 내린 것처럼 반짝이는 야경과
한여름 밤의 더위를 식혀줄 시원한 맥주와 커피,
그리고 삶의 단면을 색다른 시선으로 담아낸 독립영화까지.
한여름 밤의 끝을 낭만적으로 완성시켜줄 호천마을과
마을 거점공간을 소개한다.

글 김정원 사진 윤민호



범천2동 호천마을

아래로는 호랑이가 물을 마시러 내려온다는 호계천이 흐르고 위로는 산이 우거진 호천마을.

산복도로를 따라 다닥다닥 붙은 작은 집들이 삶의 애환을 담아 더욱 인상적인 풍경을 선사한다. 호천마을의 모습에 청춘의 낭만을 투영한 드라마 <쌈, 마이웨이>(2017)가 흥행하면서 호천마을의 야경은 더욱 알려지게 되었다. 한동안 관광객이 몰려 몸살을 앓았지만 주민과 관광객 그 사이에서 주민협의회의 노력으로 주민을 존중하며 마을을 살리는 상생의 방법을 찾아가고 있다.



호천문화플랫폼

호천문화플랫폼은 총 5층짜리 건물로 1층부터 4층까지는 주민들을 위한 주거지 전용 주차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1층으로 보이지만, 구조상 옥상 층인 플랫폼 공간은 완공 후 몇 개월간 비어있던 곳이었다. 관리하는 사람 없이 방치된 이 공간을 개인사업장으로 이용하기 위해 문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사유재산이 아닌 주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고 싶어, 범천2동 주민들과 부산의 예술가들로 구성된 호천마을주민협의회에서 이 공간을 임대하여 운영하게 되었다.

주민협의회는 호천문화플랫폼을 지역 수공예 작가들을 섭외해 작품을 전시하고 수업도 진행하며, 커피와 맥주를 판매하는 복합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독립영화를 상영하는 달빛극장을 비롯해 상설공연장을 통한 비정기 공연 등 플랫폼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공간을 활용한 여러 가지 기획을 시도 중이다.



호천생활문화센터

2013년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호천생활문화센터는 1층 다목적교육장, 2층 카페와 마을 건강센터 및 마을지기 사무소, 3층 전망대로 이루어져 있다. 마을 건강센터에는 상담간호사가 상주해 기본적인 건강 상담을 도와주며, 함께 상주하는 마을지기는 때마다 발생하는 각 가정의 소소한 문제들을 해결해준다.

센터의 자랑인 2층 카페 '꼬티'는 직접 로스팅한 원두로 오로지 핸드드립으로만 커피를 내린다.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에서는 맛보기 힘든 다양한 종류는 물론 로스팅한 지 10일 이내의 원두를 사용하며, 원두 산지에 따라 로스팅 정도를 다르게 하여 최적화된 커피 맛을 제공한다. 신청을 통해 커피클래스를 운영하는 등 커피를 매개로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지향한다.



호천문화플랫폼 108개 즐기기



버스로 편하게



외부인을 위한 주차시설이 마땅치 않아 서면 롯데백화점 근처에서 버스(86번, 29번, 87번 등)를 타고 마을까지 올라오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다.

호천갤러리



호천문화플랫폼 바로 근처에 호천갤러리가 있다. 상설 전시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작고 아담한 규모지만 한번쯤 둘러보면 좋을 곳이다.



달빛극장 즐기기



매일 저녁 8시(월요일 제외), 야경을 벗 삼아 독립영화를 보며 낭만적인 저녁을 보내보자. 짧은 단편 영화를 테마 별로 묶어 제공하며 모든 상영은 무료다. 우천 시 취소될 수 있으며, 자세한 상영시간표는 부산국제단편영화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인생샷은 매너 있게



호천마을 야경은 어디서 바라보더라도 멋진 풍경을 선사한다. 드라마 <쌈, 마이웨이> 속 남일바 촬영지는 실제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가정집으로 옥상 출입은 가능하나 밤 9시 이후로는 출입을 금지하고 있으니 참고할 것.





B·LOCALLY의 1주년을 축하해주세요.

생활문화계간지 <브로컬리> 창간 1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시간을 되돌아보기 위해 브로컬리 배포처와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자 합니다.
설문에 참여하신 분 중 추첨을 통해 매월 30분께 드릴 기프티콘도 준비했습니다!
배포처와 독자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브로컬리 1주년 기념 설문 Event



▲ 독자 설문조사



▲ 배포처 설문조사

설문기간 | 2020. 07. 22. ~ 11. 25.

* 8월~11월 마지막 수~금 중 당첨자 개별 통보

참여방법 | QR코드를 통해 설문페이지에 접속 혹은

네이버폼 (naver.me/GT7bnZc8)을 통해 온라인 신청

* 동일한 참가자의 중복 참여는 불가합니다.